

NH농협생명 '꼭 필요한 NH 신의료 보장 보험' 출시



암 진단을 받은 후 5년 생존율이 70%로 높아지는 등 첨단 의료 기술에 힘입어 각종 질병에 대한 생존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신의료 기술은 보장 사각지대에 있어 개인 치료비 부담이 크다. NH농협생명은 진단 보장과 함께 치료비 중심의 보장이 필요한 의료 수요를 위해 '꼭 필요한 NH 신의료 보장 보험(갱신형·무배당)'을 출시했다. 상품은 주 계약을 통해 첨단 의료 기술 치료비를 보장한다. 중대 질병 발생 시 치료와 회복하는 데 비해 비용 부담이 큰 ▲ 다빈치 로봇 암 수술(대형 절개 대신 배꼽 주변 2.5cm 구멍에 로봇 기구를 삽입해 수술) ▲ 고강도 초음파 집중술(HIFU) 치료 ▲ ECMO 치료(환자의 심폐 기능이 비정상인 경우 환자의 순환기 기능을 보조) ▲ 저체온 치료용법 등 치료 기술을 보장한다. 주 계약을 통해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도 보장한다. 일반 사망은 6천만 원, 재해 사망 3천만 원을 보장한다(주 계약 가입금액 1천만 원 기준). 재해로 사망하면 일반 사망 보험금에 더해 재해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 총 9천만 원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를 비롯한 아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특정 감염병으로 인

한 사망보험금도 주 계약에서 보장한다. 특정 감염병에 걸려 사망하면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심사형을 통해 병력을 지닌 사람이나 고연령층도 가입할 수 있다. ▲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조건 ▲ 2년 이내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 5년 이내 암, 간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뇌출혈/뇌경색)으로 진단, 입원, 수술 등 세 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최대 73세까지다. 20년 갱신형이며 최대 100세까지 갱신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금액은 500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25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40세 일반 가입형 20년 납으로 주계약 1천만 원 기준 남성은 2만7천590원, 여성은 1만5천534원이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맞춰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담보를 모아 상품을 출시했다"며 "중대 질병에 진단받더라도 보험을 통해 치료에 전념하도록 보장이 든든한 고객 지향적인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❶



은퇴 후 부담되는 보험료
경제활동기에 많이 내고 은퇴 후에는 적게 낼 수 있을까?

은퇴 후를 대비한 스마트한 선택!

스마트초이스NH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무배당]

※ NH농협생명FC와 상담하세요



일할 때는 더 내고, 은퇴 후는 덜 내고
보험료, 스마트하게 혁신하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스마트하게 설계하는 종신보험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무배당]

※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 또는 상담하세요

※ 배타적사용권 : 보험 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

※ 이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이 상품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표준형(해당 상품은 표준형을 판매하지 않으며 비교하여 안내하기 위함)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 보험상담 또는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로 연락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2-02251호(2022.05.03~2023.05.02)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